

# 정주공간 구성을 위한 커뮤니티설계 모형 연구<sup>1)</sup>

- 조건불리지역 산촌을 중심으로 -

유병림 \* · 황기원 \* · 이상문 \*\* · 강동진 \*\*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 수료

## Community Design Model for Remote Rural Settlements

- Focused on the Mountain Community in Less Favored Area -

Yoo, Byung-Rim \* · Hwang, Kee-Won \* · Lee, Sang-Moon \*\* · Kang, Dong-Jin \*\*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Less Favored Area(LFA) is a newly shaped regional concept and just appearing as a new community design target, where the topogeographical, industry-locational condition and the daily living environment have been outstandingly inferior to any other regions. Community Design(CD) principles that cover a spatial order of settlements are introduced in this study when the CD concept is applied to the LFA.

The study puts a great stress o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order of communal spatial units and living activities oriented to residents' socio-economic activities, on which a CD district and an inner spatial organization of community is based. Therefore the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activities and particular places, such as that betwee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land, access to living services and community-outer settlements, is analysed through the field study. The emphatic point is that the spatial unit and organization of community, namely settlement order is casted not only by the horizontal coverage but also by the vertical hierarchy forming a cubic-like spatial order.

Applying the CD idea to LFA has limit because the CD has been oriented on urban architectural style and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ss. Nevertheless, that has a new possibility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and archetypical change of a spatial pattern of community uncovering the accumulated layer of settlement order especially in the drastically changed mountain community from past to now.

1) 본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격오지 산간농촌은 다른 농촌에 비해 생산 생활 양면에서 상대적 낙후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생산조건이 열악한 산간농촌에 있어 기간산업이던 농림업이 위축되면서 지역의 생산 및 사회활동은 전면 축소되고, 동시에 인구가 급감하면서 촌락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의 절대 감소는 커뮤니티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면서 지역의 산업 및 사회문화의 재생산 기반을 와해시키고, 생산과 생활의 제반 활동을 뒷받침했던 정주공간마저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형 등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생산기반, 교통 통신 등이 미비하여 선진화된 산업 생산방식이 입지하기 어려운 지역은, 동시에 주민의 생활조건도 열악한 수준으로 남게 된다. 생산 및 생활의 제반조건이 불리한 지역, 즉 정주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국토공간상에서 그 면적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토 및 환경정책 그리고 사회 문화정책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유럽연합(EU)의 여러 국가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을 국토정책에서 공식화하여 환경 및 지역사회의 유지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토 환경관리의 첩경은 바로 인간이 정주하는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커뮤니티 특성(community character)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간오지에서의 커뮤니티를 존속시킴으로써 인구 회박으로 인해 방기된 자연 및 문화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이로써 일반 국민에게는 향촌관광 및 녹색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 활성화는 지금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해당 정주공간의 질서를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커뮤니티가 산간오지에서 형성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소 산촌에서는 공동체가 급속히 해체 소멸되면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던 개인단위 정주기능이 강조되고(윤 이, 1995:319-354), 접근성의 제고를 통한 정주체계의 단순화가 우선과제로 꼽히면서(류우익, 1988; 박 윤 이, 1995:240-242)

촌락 전체의 정주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현재의 농촌정주권 정책은 낙후된 환경기반은 방치한 채 일부 주거시설만을 개선하거나, 도시적 정주양식을 도입한 집합적 단지조성 기법으로 농촌에 이질적인 新村型的 취락을 건설하고 있다.<sup>2)</sup>

이는 마을 공동정주기반이 와해되고, 접근성 향상에 기인한 개인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집단화된 주거형태보다는 주택단위 개인 정주기능이 강화되는 공간변화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한 소치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마을단위 정주권계획은 마을내부 공간구성에 대한 건축적인 접근이 우선하여, '家←村←中心地'로 대표되는 정주계층간 관계나 커뮤니티의 기본단위를 형성하는 사회 경제적 동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농촌 커뮤니티설계는 우선 주민의 생활패턴의 실체를 모식화할 수 있는 정주모형을 마련했을 때, 비로소 설계의 방향과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의 커뮤니티설계는 지금까지 주민참여기법, 설계가의 현장접근법 등과 같은 설계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이, 1996:1-16). 그 결과 참여적 설계기법에 대한 현장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설계과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의 한계는 설계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출하려는 인간 정주지의 공간적 형식에 대한 실체적 모델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주조건이 불리한 산간촌락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설계가 지향해야 할 실체적인 정주모형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도시에서 주로 발전했던 커뮤니티설계가 농촌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을 공간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정주단위의 물리적 규모가 변화되고 토지생산권 및 사회활동권의 수평 수직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나타나는 정주지(家, 村, 中心地)간의 계층구조, 커뮤니티 내부의 공간분절 단위, 개인 주거공간과 공동공간의 기능변화 특징을 파악하여 커뮤니티설계의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건불리지역의 정주환경적 특성과 커뮤니티설계 개념의 고찰을 통해 정주계획의 과제를 도출한 다음, 이를 한 사례지역에 적용했을 때

2) 정부가 추진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1976, 내무부)과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1983, 농촌진흥청)은 부분적인 환경개선을, 문화마을조성사업(1991, 농림수산부)은 신촌건설을 목표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의 예이다.

커뮤니티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정립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 II. 조건불리지역 커뮤니티설계 모형에 관한 개념적 고찰

### 1) 조건불리지역의 개념

산간부, 경사지, 해안 등 자연조건이 불리한 지역(Less Favored Areas)에서는 자유경쟁이나 합리화만을 주장하면 농업생산이 중단되고 인구정주가 불가능하여 과소화되고, 이로써 국토공간 질서가 크게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래서 EU에서는 가능한한 과소지역에 주민을 정착시켜 거기서 농업을 영위케 함으로써 자연 문화환경과 지역공동체를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sup>3)</sup>

유럽의 신농업구조정책의 내용을 보면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농민에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고, 자연조건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며, 농업과 연계된 관광 혹은 수공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전원경관의 보전에 합당한 영농방법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유럽에서 조건불리지역이란, ① 경작하기 어려운 열등지가 대부분이어서 조방적 농업 밖에 안되는 지역, ② 농업경제 상태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 ③ 인구가 매우

적고 감소가 진행되어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대책의 대상이 되는 또 하나의 지역은 환경보전과 전원의 경관유지를 위하여 농업의 지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유럽에서의 조건불리지역은 먼저 자연지리적 조건이 열악하여 농업생산이나 타 산업활동이 불리한 지역으로 지역의 환경 및 경관보전에 정책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지역이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건불리지역 대신 오래 전부터 낙후지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왔다.<sup>4)</sup> 낙후지역이라 함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여건의 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하고 생활 및 문화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말한다. 이것의 유사개념으로는 침체지역, 저개발(부진)지역 등이 있다(엄기철, 1994:125). 우리나라에서의 낙후지역은 유럽의 조건불리지역이 의미하는 자연입지적 조건의 열악함을 강조하고 있기 보다는, 경제적 개발수준이 낮거나 도시화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서 사회 경제적 조건의 열악함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sup>5)</sup>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언급이 공식적으로 언급된다.<sup>6)</sup> 여기서 조건불리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 및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어촌 및 도서, 오지 그리고 산촌지역으로 규정하면서 교통여건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소득창출 기회도 극히 제한된 지역으로 개념

3) 조건불리지역의 개념은 유럽 등지에서 농업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추진된 지역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EU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최근의 농업정책의 큰 특징의 하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즉 환경보전 기능과 국토관리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을 단지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생활의 수단으로 파악하여 농가를 국토관리와 지역사회 형성의 주체로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이른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이다. 1980년대 들어 오면서 유럽의 농업구조가 크게 변모하여, 즉 소농이 대폭 감소하고 대농의 비중이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업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 그 특징 중의 하나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지역의空洞化 현상이다. 특히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농촌지역의空洞化 현상은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규모마저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인 것이다. 가령 서독에서는 사회민주당 내각--브란트로부터 슈미트까지-- 아래서는 규모확대, 효율화,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향하여 농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보수당 내각(콜 수상)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을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공간질서를 유지보전하는 일이라는 이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상은 독일보다 사실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이른바 구릉지(hill-side)의 경사지에 대하여는 일정부의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하여 경관보전과 농가안정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영국이 1973년 EC에 가입할 때 이 정책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에도 점차 이와 같은 정책개념이 확산 되었다. 현재 이들 국가들은 전체 경지의 50% 내지 60%를 LFA로 지정하고 있다.(이정환 외, 1991:16-17.)

4) 낙후지역 설정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①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감소 및 과소지역, ② 국가계획의 개발효과가 미치지 않는 지역, ③ 도시적 토지이용율이 낮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④ 농경지 비율이 낮은 산간오지지역 등이다.

5) 정책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은 구체적으로 오지지역, 도서지역을 가리킨다. 개별법상 오지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에서, 도서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 두 법상에서 규정한 낙후지역 대상의 정책 이외에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그리고 광산촌지역과 민통선북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지역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을 설정하고 있다.

2) 산촌의 정주 특성: 定住共同性的의 해체

산촌의 공간변화 특성을 윤 이(1996)는 정주공동성<sup>7)</sup> 이라는 측면에서, 생산 및 생활과 관련된 마을단위의 사회 경제적 공동활동이 와해됨으로써 정주체계상 산촌의 공동성의 수평 수직적 공간범역이 재편되고 있음을 살피고 있다. 사례지역인 평창군 미탄면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간 취락에서 정주공동성이 존재하는 공간 범역을 경제적 공동성, 사회문화적 공동성, 공동 공간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표 1 참조)

정주체계(settlement system)라는 관점에서 윤 이(1996)는 산촌의 정주공동성 곧 공동정주기능의 존재 특성으로, 농업 생산활동을 근간으로 자연부락단위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공동기능이 해체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수평적 공간범역의 관점에서 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적 공동활동의 영역이 확대되어 수개의 자연부락이 연합되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 범역은 일반적으로 큰 골을 끼고 있는 행정리 경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수직적 정주위계의 관점에서 정주공동정주기능은 기초정주단위(자연부락)와 2차 정주계층인 소도읍(면소재지)의 중간쯤에 존재하고 있고, 특히 전통적으로 1차 생활거점이던 중심마을은 그 존재 의의를 크게 상실한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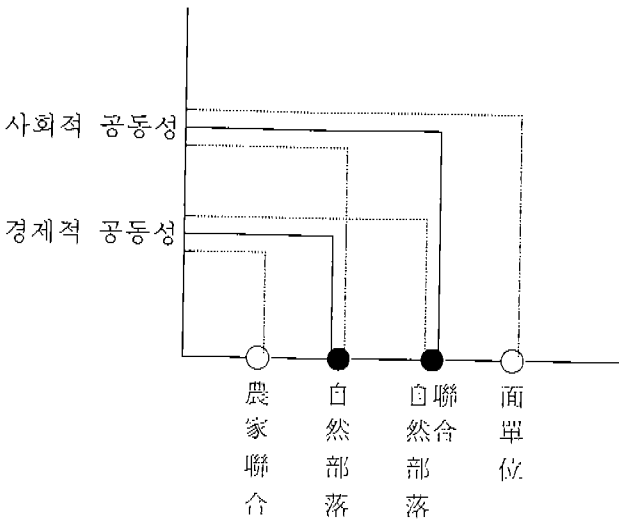
<표 1> 산간취락에서의 정주공동성의 공간적 범역

정주공동성의 구분	정주공동성의 공간적 분포 범역
경제적 공동성	(농업노동력 교환관계의 공간적 존재영역) - 품앗이 교환권의 공간적 확산 현상: 자연부락단위의 노동교환권에서 벗어나 인근 4-5개의 자연부락이 권역으로 통합되는데, 다만 골짜기로 環圍된 행정리 경계를 넘지는 않음. - 노동 고용권의 공간확대 현상: 농업노동력 품귀로 고용권이 확산, 면소재지, 군소재지, 인근 군지역으로 잉여노동력 공급권이 확대됨.
사회문화적 공동성	- 전통적으로 마을내에 존재하던 비공식 사회조직인 경조사계와 친목계의 약화 소멸 현상 - 친목계의 구성권역이 마을단위를 벗어나 면단위로 확대 전환 - 마을단위 공식조직인 마을회의, 부녀회 등의 유명 무실화 - 작목반, 유기농회 등 새로운 경제조직의 출현과 조직구성권의 확대(여러 개의 자연부락 연합) - 자연부락단위로 이루어지던 성황제, 산신제 등 마을 공동체의 약화 소멸 현상 - 마을단위 공동놀이의 단절과 단체관광으로의 대체하고, 마을전체가 참여하는 놀이는 광역 행정단위의 공식행사(면체육대회, 군체육대회)로 전환
공동 공간	-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 생산 및 생활관련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의 단절로 기존 공동공간의 유향 소멸 현상. - 마을 진입로의 확포장, 마을 안길의 부분 포장, 동네 마당의 주차장화 등 교통 도로체계를 중심으로한 마을 공간구조의 재편 현상. - 중심마을(水洞) 소재 구관장이나 가게의 이용 저조와 마을단위 구매기능의 퇴조 현상.(일차 생활권의 거점으로서 水洞 기능의 약화 소멸 현상 → 하위 정주체계의 불안정 초래)

자료 : 윤 · 이(1996:7-10)에서 수정 편집하여 작성함.

6) 농어촌발전위원회는 WTO 체제 출범이후 어려운 농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94년 2월에서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범국민적 의견수렴기구였다.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조건불리지역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조건불리지역의 진흥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 지역의 현상적인 특성과 어촌종합개발의 추진, 도서지역의 유형별 개발전략 추진, 산촌종합개발의 추진, 조건불리지역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농어촌발전위원회, 1994:101-107.)

7) 정주공동성이란 일정한 영역내에서 인간의 정주에 필요한 사회경제 및 문화 그리고 공간적 측면에서의 공동적 기반을 의미한다. 정주공동성이란 정주성과 공동성이 결합된 조어로서 정주라는 접두어를 첨부하는 이유는 공동성에 대한 그간의 접근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밝히는데 주력, 그 활동과 상호관입적 관련을 맺는 공간적 특성, 곧 공간적 공동성에 대한 접근이 소홀히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성을 정주체계와 관련지워 설명하려는 것은, 공동성이 일정 영역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역과 영역간의 관련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문제, 곧 정주체계상의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정주라는 개념은 크게 어떤 지역을 삶의 터로 정하는 인간행위로 정의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농촌에서의 정주는 삶의 공동성 즉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공동적 생업기반과 일상에서의 공동을 모체로 하여 왔다.(윤 이, 1996:1-2)



(범례)

- 비교적 뚜렷한 영역
- 약한 영역
- 독립적 정주단위(공동성 측면)
- 비독립적 정주단위

자료: 윤·이(1996:16)에서 인용

〈그림 1〉 산촌에서의 정주공동성의 존재 영역

### 3) 커뮤니티설계(Community Design)의 개념과 산간촌락에의 적용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오래동안 지역사회학의 본질적 연구대상의 하나로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들의 결합체 혹은 집합단위를 의미하면서 그 사회구성체가 존재하는 분절된 공간단위 즉 영역적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sup>8)</sup> 커뮤니티를 정주단위 측면에서 접근하는 커뮤니티설계(CD)는 도시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설계 분야에서 1960년대 추창적 계획이론(advocacy planning theory)에서 계획방법론에 관한 이념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후 최근 새롭게 형성되는 정주개발의 한 분야를 통칭한다. 그래서 아직 CD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설계규범이

환경설계이론에서 보편화된 것은 없다. CD라는 것이 어떤 정태적 상태를 띠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특성(Greene 1992:186) 때문에 CD의 개념과 형식 그리고 그 방법론도 시간의 흐름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1982년 이후 Greene, Lozano의 입문적인 연구 이후 도시설계, 관광계획, 생태계획, 농촌계획 등에서 새로운 계획이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점차 논의되고 있다.

CD에 대한 접근은 크게 세가지 부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계획 및 설계과정상의 주민참여 기법을 CD의 핵심으로 보는 입장이다. 기존의 환경설계가 계획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수행되는 것의 한계를 인식<sup>9)</sup>, 참여적 설계과정을 위해 개방설계포럼(open community design forum), 계획가-고객(주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two-way communication), 계획가의 자질로서 듣는 아량과 정치적 리더쉽, 다양한 설계도구와 참여 프로그램 등에 의한 주민 현실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는 촌락이나 도시의 공동체적 삶과 정주패턴 및 토지이용에 대한 공간학적 탐색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부류이다.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원칙,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농촌 낙후지역의 개발, 주거공간의 고유한 환경양식, 취약 정주패턴 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주공간의 구성원리를 환경설계를 통해 실현하는 것을 주된 임무의 하나로 삼는 입장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공간설계를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 형태에만 치중하여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구조가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동인을 중요한 계획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지역의 건축양식 보전, 정체성 있는 장소만들기, 커뮤니티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은 환경의 심미적 양식에 대한 접근이 중심이 되는 부류이다. 전세계적인 신복고주의 흐름과 전통 문화환경보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에 독특한 건조물 및 공간양식에 기초한 환경계획의 수립을 주창하는 입장으로 독일의 마을재정비(Dorfneuerung), 일본의 마을만들기(むらづくり)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상문, 1996:1-12)

정주조건이 불리한 산촌을 대상으로 CD의 기법을 적용

8) Community의 다의적 개념에 대해서는 Poplin(1985, 홍동식 박대식 편역)의 pp.18-41.을 참조하기 바람.

9) Lozano(1990)는 건조환경에 대한 설계적 접근은 대중적(popular) 전통과 전문가적 전통으로 양분되는데 상위 고급문화를 지향, 고상한 취향의 건조물 설계에 치중하는 전문가적 설계전통은 일상의 정주환경이 무명의 장인과 민중들에 의해 부단히 조성되는 점을 간과한다고 지적하고, 커뮤니티 디자인은 장인적이면서 민중적인 접근방식을 존중하여 인간이 균거하는 정주지의 공간패턴을 탐색하여 이를 설계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CD의 두 번째 측면 즉 정주공간의 새로운 구성원리와 관련이 있다. 산간 촌락은 생활의 공동적 기반이 급속히 해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가장 기초적인 정주단위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커뮤니티 정주계획의 대상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생활권을 파악하여 커뮤니티 내부의 공간분절 단위를 찾아 이를 설계단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의 이동경로와 행위 발생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의 기능 분담, 생활의 거점과 권역, 커뮤니티의 정주체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 Ⅲ. 사례 마을 (평창군 미탄면 회동2리) 정주공간의 특성

#### 1) 인구 및 농업의 특성

먼저 인구 급감과 마을공동화를 지적할 수 있다. 1993년 행정통계상 인구수 172명, 가구수 42호로서 1973년 대비 인구 73%, 가구 58%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1995년 현재 총가구수는 35호, 60세 이상 노령가구주가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총주택수 49호중 공폐가수는 14호(28.6%)에 이른다. 인구 감소로 농가당 평균 영농활동 종사자수는 1.9인/호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유형에서 전업농가 30호, 겸업농가 3호, 비농가 2호(학교사택 1호)인 것에서 농업이 주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농업생산과 토지이용에서는 회동2리 구역내에 田의 총면적 146ha인데 비해 짧은 전무한 상태로 山間 田作村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2) 주민 활동권의 특성

주민 활동권의 조사 결과, 먼저 주택이 분산 분포하는 산간촌락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과 주변 전작지가 하나의 독립된 도보 생활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도보권역의 평균 경지도달시간은 14.6분이고, 경지이동방법은 도보 71.4%, 동력기계 이용 28.6%로 나타나고, 주요 운반수단은 경운기(46.7%)이다. 두 번째는 중심지(읍 면소재지) 편의시설 이용 증대 및 방문판매 이동서비스(mobile service)의 증가로 중심마을(본동)의 기능 상실 현상이 목격된다. 월평균 이동회수를 보면 군소재지(평창읍) 4.7회, 면소재지 9.7회이고, 면소재지의 5일 정기시장은 10일에 1회 정도이고, 결혼식장 이용은 면소재지 50.0%, 군소재지 12.5%, 타지역 37.5%이며, 고등학생의 절반은 통학, 절반은 평창(50%)과 영월(50%)에서 자취를 하는 등 인근 면소재지가 생활거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과거 중심마을이었던 회동리 본동은 담배, 주류, 과자류 등 극히 일부 품목에서 9.14% 정도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동 서비스로는 식품, 연탄, 석유, 가스, 신문, 우편, 가전용품 등이 있는데, 식품 판매 부식차는 4.5일, 일상용품 판매 잡화물차는 7.10일에 한 번씩 방문판매를 하며, 가전제품은 면농협에 주문하면 배달되고 있다. 상품 구매기간 및 구입처는 다음 (표 3)과 같다.

#### 3) 주거공간의 특성

주택이 노후됨에 따라 생활상의 문화적 욕구에 주거환경이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큰 특징으로 드러난다. 주택재료와 연료형태를 조사한 결과, 몸채와 부속사의 지붕은 슬레이트가 100.0%와 82.8%, 흙벽은 70.6%와 55.1%를 차지하고,

〈표 2〉 회동2리 농업생산과 토지이용

경지면적	- 田의 총면적 146ha - 회동2리 구역내 짧은 전무
경지소유 및 임대차	- 밭소유면적 4,070평, 논 소유면적 175평 - 밭의 호당 평균 임대면적 965평, 임대면적 300평
농작물 재배면적(호당)	- 호당 농작물 재배면적: 옥수수 1,267평, 고추 967평, 배추 950평, 무우 517평, 콩 207평, 팥 117평, 감자 34평, 들깨 29평
축산 및 기타 농업생산	- 축산농가 10호의 사육규모: 염소 351두, 소 40두, 닭 550수 - 기타 농업생산물: 양봉 4호, 버섯 1호, 메밀재배 1호
밭의 경작규모	- 호당 밭의 경작규모 4,735평 - 영농종사자 1인당 경작규모 2,492평

난방과 취사연료에서도 화목 사용율이 41.4%, 26.7%씩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래적인 주거환경 특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기름보일러가 보급되고(37.9%), 입식부엌이 들어서면서(37.5%) 주택구조가 개조되고 있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생활문화용품이 보급되면서 재래적인 주거 동선과는 부합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택공간에서 생산 및 생활기능의 미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마당의 평면적 구성을 보면, 장독대, 수돗가 등이 있는 집이 각각 85%, 70%, 텃밭과 거름터가 있는 집이 30%, 55%를 점하고 있어 주택에서 생산 및 생활 공간이 혼재되어 있다. 부속사의 평균 칸수가 7.24칸이고 이들 대부분은 창고, 건조장, 축사로 이용되는 것에서도 산간

〈표 3〉 주민의 일상용품 구매권

구분	담배	주류	과자류	찬거리	주방용품	문구류	의류	신발류	가전제품	가구류	
구매기간(日)	8.5	7.0	5.6	7.1	60.3	6	168.3	168.9	-	-	
구입처 (%)	본동(1리)	12.5	9.1	14.3	-	-	-	-	-	-	
	미탄면	87.5	72.7	71.4	79.2	80.0	100.0	41.7	62.5	5.0	
	평창읍	-	-	-	-	10.0	-	58.3	37.5	35.0	75.0
	상인차	-	9.1	14.3	20.8	5.0	-	-	-	5.0	-
	농협배달	-	9.1	-	-	-	-	-	-	45.0	-
자녀구입	-	-	-	-	5.0	-	-	-	10.0	25.0	

주: 1. 농협배달 : 미탄면 단위농협에서 주문 접수후 가정 배달, ②: 商人車(부식차, 잡화물차)의 마을 방문판매  
 자녀구입 : 타지로 진출한 자녀들이 구입하여 증여  
 2. 구입처 비율은 해당 품목에 대한 주민 구매활동 빈도의 백분율을 나타냄.

〈표 4〉 사례마을 주택의 물리환경적 특성

단위 : %

주택지붕		주택재료		난방연료	취사연료	부엌형태
몸체	부속사	몸체	부속사			
슬래트 1000	슬라브 8.6 슬래트 82.8 함석 6.3 너와 4.2	벽돌 11.8 블럭 11.8 시멘트 5.9 흙벽 70.6	벽돌 1.4 블럭 1.4 나무 30.4 개방벽 10.1 시멘트 7.2 흙벽 55.1 기타 1.4	화목 41.4 연탄 20.7 기름 37.9	화목 26.7 연탄 13.3 가스 46.7 전기 13.3	재래식 62.5 입식 37.5

주: 마을 총주택수 49호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냄.

〈표 5〉 사례마을 주택의 공간구성

단위 : %, 칸

마당*	담장*	대문	방수	부속실	부속사 평균 칸수	부엌형태
장독대 85.0 텃밭 30.0 거름터 55.0 나무덤 25.0 수돗가 70.0 주차장 5.0	생울 14.3 목책 9.5 돌담 38.1 없음 81.0	철제 4.8 없음 95.2	2칸 10.0 3칸 55.0 4칸 5.0 5칸 5.0	1칸 28.6 2칸 38.1 3칸 28.6 4칸 4.8	7.24칸	창고 1.81 구건조장 0.19 신건조장 0.33 우사 1.43 계사 0.52 헛간 1.23 화장실 0.91 염소사 0.33 기타 0.33

\* 마당과 담장의 비율은 마을 총호수중 해당 항목이 있는 가구수의 비율을 나타냄 (예 : 장독대가 있는 가구수/전체 마을호수)

촌락의 주택 기능이 농업생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 주택과 마을공간의 기능 미분화가 현상도 목격되는데, 담장, 대문과 같이 주택 경계가 없는 경우가 81.0%, 95.2%나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에서 주차공간(5.0%), 철제대문(48), 개량 화장실(0.91칸)이 마련되는 것에서 주거공간에서 생활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마을공간과도 기능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 4) 정주지 내부 공간분절단위<sup>11)</sup>의 변화 특성

사례지역 커뮤니티 내부에서 다소 독립적인 정주지 분절단위(근린단위)는 보통 11호에서 13호가 모여서 형성되고,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규모는 거의 유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1965년 당시 회동2리 전체에는 174가구가 거주하면서 모두 14개의 소규모 공간분절단위를 갖고 있었다(분절당 평균 12.4호). 1가구만 거주하는 골을 제외한다면, 1975년에는 100가구에 9개 분절(분절당 평균 11.1호), 1985년에는 68가구에 6개 분절(분절당 11.3호), 1995년 현재에는 34가구 3개 분절(분절당 11.3호)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주거지가 없고 경지만 있는 11개의 공간분절(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과거부터 경사지 전작지대에서 효율적인 토지경영을 위

〈표 6〉 마을내부 공간분절의 변화

분절 단위 (골의 지명)	1995년 가구수	1985년 가구수	1975년 가구수	1965년 가구수	축소·소멸 연도	비 고
애매골	0	0	3*	8	1972-82	
절골	1(1)	8*	11*	13	1985	
큰산넘어골	0(1)	4*	9*	9	1985	
산너미(유산동)	1	1	6*	7	1975-79	
수리재	16(9)*	25*	30*	30		
새터	0(1)	1	5*	5	1982-91	폐가(1)
장자터	3*	6*	20*	30	1975-90	1975(20)
앞골	9*	11*	12*	12		
두만리	1(1)	0	0	8		독가촌정리/1972
자진구비들	0(1)	7*	0	10	1973-84	독가촌정리/1972
능애동	1	0	0	9	1974-84	야산개발/1964, 목장
청옥동	0(1)	0	3*	30	1969-84	야산개발/1964
장군바위(단군재단)	1	1	1	1		대종교 재단(1)
육백마지기들	(1)	1	0	10	1969	야산개발/1964-67
계	34(16)	68	100	174		

주: 1. ( )안은 거의 공가가 된 가구수를 나타냄.

2. \* 표시는 인구감소 이후에도 자립적인 커뮤니티 내부 공간분절단위를 나타냄.

10) 1980년대 초부터 사례마을에서는 공동모임과 놀이, 행사 등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마을회관, 창고 등 공동시설은 거의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들어 마을 진입로와 개별 주택까지의 안길이 포장되면서 시내버스가 동네까지 연장 운행하고 자동차까지 보급되면서 주거기능이 개별 가구 중심으로 개인화하고 있다. 장래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리라 예상된다.

11) 공간분절은 인간의 정주활동에 있어 영역적인 독립성을 띠면서 외부와는 구분되는 단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간촌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주지의 공간분절 단위를 골짜기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마을내의 소규모 분지형 골짜기가 주거지와 주변 농경지가 통합된 영역을 형성하고, 또한 토지이용에서 농업생산권이 인근 골짜기(외부)와는 隔絶되면서 주민의 공간인지에서도 자립적인 생활단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공간분절은 자연지형상의 능선, 수계, 들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표상의 인간활동이나 인지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획정한 것이다. 산촌 특성상 자연지형과 함께 주택과 농경지 분포, 주민 생활권, 토지 생산권 등을 고려하면서 과거부터 地名이 붙여진 하나의 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민의 공간인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모면에서 분절단위는 소규모 골짜기로 보통의 자연부락보다 작으며, 分散된 山村的 특징상 한 가구가 주변의 농경지와 결합하여 하나의 독립된 분절을 이루기도 한다. 한편 伊藤庸 (1985: 16-28)은 일본 촌락의 영역적인 근린(トナリ)단위로서 組班을 설정하고 있다.



해 발 주변에 분산 근접 배치됐던 주택들이 1970년대 초 정부의 對共 군사전술 및 산림녹화를 위해 독가촌 및 화전민 소개사업을 시행하면서 낮은 지대의 마을로 이주하거나 이농을 하게 된다. 그 이전만 해도 10여호의 주택이 군집하여 독립된 자연부락을 형성, 품앗이나 계조직으로 농업생산과 경조사에 공동 노력을 했으나 표고 55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소개사업(중심마을인 수리재에 집단이주지가 10여호 건설됨)과 이농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개별가구들이 고립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과거의 분절단위는 소멸되기에 이른다. 경사지형 때문에 기계화가 어려워 노동력이 마을내에서 수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고지대의 작은 마을들이 저지대의 마을로 이전하여 일정 규모의 자립적인 영농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농업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일정 면적의 경작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존재하는 인접 촌락을 찾아 노동력 교환권(품앗이권, 노동고용권)은 확대 될 수밖에 없고 전체 노동총량이 과거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선에서 하나의 자립적인 소정주 단위(공간분절)는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과거 저지대로 소개된 가구중의 일부는, 주택과 농경지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영농에 애로가 많아 원래 마을로 회귀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경사지에서 수작업에 의존하는 전작농업은 노동절감을 위해 주택과 경지의 근접 배치가 취약형성에 중요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5) 공간분절에 대한 주민인지의 변화 특성

주민 대부분은 작은 골 하나를 일상생활의 하나의 공간

<표 7> 공간분절에 대한 주민인지 정도

지 명	지 명 인 지			지 명 인 지			지 명 인 지		
	A	B	C	A	B	C	A	B	C
애매골	8	1	6	9		6	5	2	8
절골	15			15			13		2
작은산넘어골	13		2	15			5		10
용수골	15			15			11		4
큰산넘어골	14		1	14		1	7		8
산너미(유산동)	11		4	10		5	5		10
새골	10		5	10		5	4		11
수리재	15			15			15		
숯돌개울골	14		1	12		3	12		3
새터	15			15			14		1
장자터	15			15			15		
앞골	14		1	15			15		
두만리	15			15			14		1
두만이골	14		1	14		1	13		2
래동골	6		9	6		9	8		7
용골	5		10	6		9	8		7
서적골	12		3	11		4	11		4
자진구비들	14		1	15			12		3
자진구비골	12		3	13		2	11		4
옹장골	14		1	14		1	12		3
능애동	15			15			12		3
정옥동	14		1	13		2	8	2	5
장군바위(단군제단)	15			15			10	1	4
육백마지기골	15			15			12	1	2
육백마지기들	15			15			12	1	2

주 : 표의 수자는 위 내용의 조사에 답한 15호 중에서 해당 항목의 빈도수를 나타냄.

보기 : 인지정도(A 잘 안다, B 애매하다, C 모른다), 동네인식(A 그렇다, B 애매하다, C 아니다)

단위로 인식하고 있고, 과거에 축소 소멸된 골(자연부락 혹은 다락밭)에 대한 공간 인지는 크게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설정한 마을내부 공간분절에 주민의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 25개 골의 지명과 위치, 우리 동네라는 인지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주민 15명중 75% 이상이 21개 골의 지명을 잘 알고 있었고, 이중 19개 골은 위치까지 알고 있으며, 우리 동네라는 인지범위를 75%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17개 골이 포함되었다. 고지대에 입지하여 1970년대 소멸된 자연부락이나 휴경화된 다락논은 그 지명과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동네의 범주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6) 주민의 발생행위<sup>12)</sup>와 이동경로의 특성

주민들의 일상 행위의 결절지점과 활동범역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별로 매순간마다 발생하는 행위를 시간과 공간별로 기록하여 3일간 그 경로를 파악하였다(그림 2 참조). 마을 가구 중 15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두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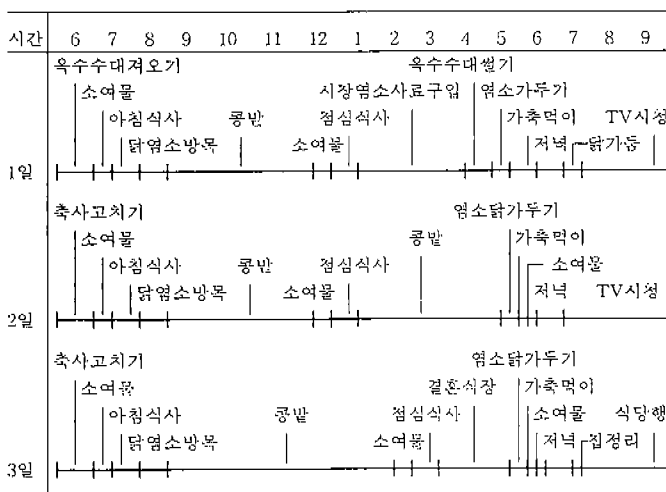
첫째, 주민들의 활동이 담기는(결절되는) 세 개의 풀(pool)이 있는데 바로 주택, 경지(밭), 면소재지이다. 사례 마을의 일상 행위는 이 세가지 활동축을 기본으로 조직되고

있었다. 생산은 “주택↔경지(밭)”의 축을 따라 이루어지고, 생활은 “주택↔면소재지”의 활동축이 근간이 되었다. 특히 생활상의 주민 이동경로를 보면 개인 주택단위와 면소재지가 바로 직결(direct access)되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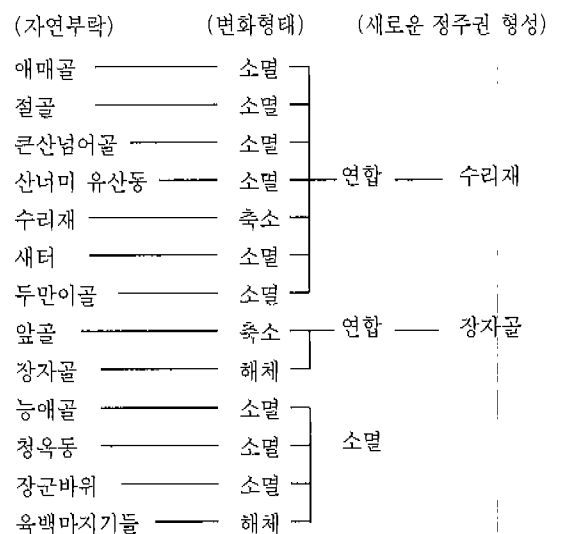
둘째, 조사 주민의 행위범역은 개인별로 차이가 다소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농경지의 분포 경계와 거의 일치하고, 앞서 도출한 우리동네에 대한 인지경계와도 겹치고 있다. 이로써 마을의 범위는 기존 단일 자연부락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구가 감소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경계가 확장하여 여러 개의 통합된 자연부락이 커뮤니티 기본단위가 되고 있다.

7) 사례분석의 종합 : 새로운 정주질서로의 재편

(중심마을의 기능상실 현상) 회동 본동(중심마을)은 과거에 일상 생활권, 행정체계, 대인관계 형성, 농작업권 등 정주권 형성에서 1차 거점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교통 통신 체계의 발달, 평창읍 및 미탄면소재지로의 생활권 확대, 상인차량 방문 판매 및 주문배달 서비스 향상 등의 영향으로 거점 기능을 상실, 하위정주체계에서 중심마을 기능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에 회동 본동이 수행했던 1차 생활거



<그림 2> 3일간 발생행위와 이동경로(J씨의 경우)



<그림 3> 자연부락의 해체와 연합(미탄면 회동 2리)

12) 농촌지역에서 발생행위는 宮澤 鐵藏(1984: 302-329)이 발생행위량의 측정방법과 행위 발생권역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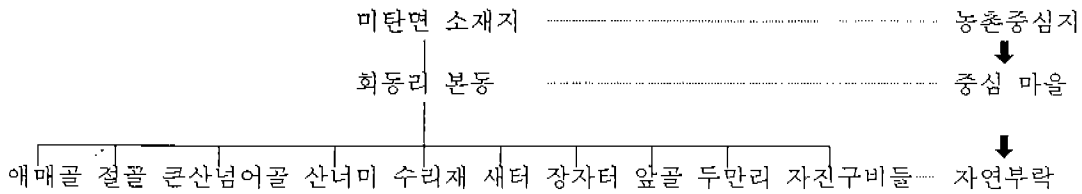
집 기능중 행정, 상품구매, 대면관계 기능은 평창읍 미탄면 소재지로 기능전이(상향전이)를 하고, 일부의 행정서비스, 농작업, 생활편익 기능은 아예 가구(주택)단위로 기능전이(하향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심마을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과 동시에 중심지와 주택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주체계의 단순화 현상) 인구유출로 인한 마을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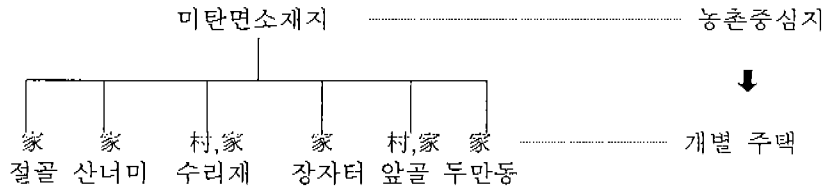
절대적 감소, 마을공동의 생산 및 생활기능의 해체 등 하위 정주계층의 불안정과 생활권 형성에 있어 중심마을의 기능 상실로 인해 “미탄면 소재지 회동리 본동 14개 자연부락(골)”과 같이 다단계의 정주체계가 단순화되어, “미탄면소재지 개별주택”의 직결형 정주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그림 4 참조)

■ 과거의 정주체계



■ 현재의 정주체계



<그림 4> 정주체계의 변화

(정주공동성의 약화로 인한 공동공간의 소멸 현상) 과거 농업 생산활동을 근간으로 마을단위에 존재했던 품앗이, 계, 마을놀이, 동제 등의 공동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동네회관, 동네창고, 동네마당, 성황당, 산신제터 등 공동공간은 그 이용이 급감하여 거의 소멸되고 있다.

<표 8> 사례마을 공동공간의 소멸

경지면적	마을회관	동네창고	동네마당	성황당	산신제터
1975년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1995년	폐관 방치	폐관 방치	사라짐	소멸	소멸

(개인 정주기능의 강화 현상) 마을의 정주공동성이 약화되는 반면 경제, 사회, 문화활동에 있어 개인 정주활동이 강화되는데(정주기능의 하향전이 현상), 개체화되는 정주활동은 개별 주택이 기본단위가 되고 있다. 마을 전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던 휴식 및 놀이, 문화향유, 농업생산 활

동 등이 도시적 생활양식의 도입, 기계화에 의한 개인단위 농작업으로 개인 주거단위에서 대부분의 생산 및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인이용 생활문화용품의 보급, 주택개량 등으로 생산, 주거, 문화활동들이 개체화하여 개별 주택의 정주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 공간분절의 다층화 현상) 場所固着的인 토지생산권과 流動的인 일상 생활권의 이원화로 마을에 존재하던 주민활동의 結節點이 마을내에서 이탈, 마을 외부 특히 면소재지로 이동하면서 커뮤니티의 공간분절단위들이 다양하게 중층되고 있다.

- ① 토지생산권의 변화: 품앗이권과 노동력 고용권의 수평적 확대(마을간 연합), 농작업권의 확대
- ② 전통적인 마을단위 사회문화적 공동권역의 소멸과 면소재지로의 권역 확대
- ③ 일상 생활권의 확대: 자연부락 및 중심마을 단위 1차 생활권의 면소재지로의 확대

#### Ⅳ. 정주질서에 대응한 커뮤니티설계 모형의 정립

##### 1) 커뮤니티 설계구역 설정

기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자연부락이 해체되면서 공간분절의 단위가 자연부락간 연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중시, 설계구역은 일정 골(谷)안에 입지하는 수개의 자연부락을 하나의 설계단위로 설정토록 한다.

###### (1) 토지이용상의 설계구역 설정

설계구역의 설정 단위를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과 생활의 일체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농촌 커뮤니티설계는 취락의 집단 주거지 뿐만 아니라 인근 농경지상에 산재한 개별 주택도 포함해야 하며, 토지생산이 이루어지는 농경지와 주변 임야를 포괄한다.

농촌공간의 설계구역은 토지생산권을 1차적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의 일상 생활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고 그것은 토지이용상에서 보면 필지로 구획된 농경지의 전·답·과수원 등과 주거지의 대지가 多對一로 대응하는 짝을 이루면서 활동의 기본단위를 형성하게 되고 경지와 대지의 짝대응의 토지이용적 범역은 산간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골안에서의 취락과 농경지, 임야가 모두 포함된다.

###### (2) 정주체계상의 설계구역 설정

주민의 활동을 공간적인 권역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생산권과 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생산권에는 농업생산과 관련된 토지소유권, 영농권, 농작업권, 농지임차권, 농작업수위탁권, 품앗이권 등이 있고, 생활권에는 상품구매권, 학구 및 통학권, 시장권, 행정서비스권, 교통권, 의료서비스권 등이 있다.

① 주민의 일상이 토지와 직접 관련을 맺는 여러 가지 생산권은 서로 그 공간적 범역에서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공통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공통되는 경계를 기준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와 관련된 설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농업기반정비(경지정리, 용배수로정비, 농로정비 등)에 관한 계획이나 일정 구역단위 영농계획(특화된 일정 농작물의 土産團地계획, 전업농가육성 프로그램, 농지집단화 및 규모화계획 등)을 수립시의 계획단위는 여러 토지생산권이 중첩되는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과거의 농촌 생활권은 독립된 한 개의 자연부락이

소정주권(일차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인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심마을이 농촌생활권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중심마을을 정점으로 여러 개의 마을들이 유기적인 기능을 맺고 2차적인 권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기초 자연부락들도 상위 중심지와 함께 1차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중심마을의 기능이 약화·소멸되어 “중심지-중심마을-기초 자연부락”의 정주체계가 허물어지고, 대신 “중심지-기초 자연부락(개별주택)”의 단축된 정주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계획구역은 한 개의 마을만을 대상으로 구역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상위 중심지와 인근 마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③ 자연부락의 절대규모가 축소되면서 일정 구역안의 수개의 자연부락들이 연합되는 현상을 중시하여 생활기반 정비와 관련된 계획(도로 및 교통계획, 상하수망 확충계획, 주민 공동편익시설 설치계획, 주거환경개선계획 등)을 작성할 때는 인근 중심지의 소도읍정비계획(읍면소재지 도시계획)과 연동화 되어야 한다. 기존에 촌락계획에서 접근하던 중심마을 육성방식은 그 의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 중심지와 배후마을들을 새로운 정주질서로 조직하는 통합계획이 되도록 한다.

④ 산간지역은 지형의 영향으로 하나의 골짜기가 하나의 행정리를 형성하여 골짜기 내부 행정리에는 평균 7-10개의 자연부락이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간지역의 정주계획은 하나의 생활 및 생산권의 측면에서 공통경계를 지니는 골짜기가 통합된 계획구역으로 적합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획구역이 골짜기의 범위를 넘어 타 행정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수계를 이용하면서 영농활동과 일상 사회문화적 활동이 겹치는 하나의 골(谷)이 계획구역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수계와 관련된 유역, 토지생산권, 생활권이 자연지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촌의 수질 및 수변경관 보전, 하천생태계 보전, 농업환경보전 등 환경계획의 수립도 골짜기를 단위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설계구역은 산촌 커뮤니티의 공간범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산촌의 기초 정주단위는 중심지(면소재지)-기초 자연부락의 중간 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골짜기 안의 본동 마을과 주변 5~6개의 자연부락이 설계구역안에 포함된다. 산촌 커뮤니티의 설계구역은, 하위 정주질서가 이제 인근 중심소도읍까지

확대되는 상황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정주체계에서 그 범위가 수직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2) 정주공간 구성과 커뮤니티설계의 원칙

(1) 기초 정주단위의 설정 : “농촌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주단위는 마을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주택이다.”라는 것이 현대 농촌마을의 주거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개념이다.<sup>13)</sup> “농촌 중심지↔개별주택” 직결형 정주체계(정주체계의 단축)를 형성하기 위한 접근성 향상과 개별 주택단위의 정주기능 강화가 농촌 커뮤니티 공간설계의 핵심관건이라 할 수 있다.

(2) 개체화(個體化)의 원칙 : 마을 전체의 평균적인 설계에서 탈피, 개별 가구단위의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커뮤니티설계는 마을 전체에 대한 총량분석보다는 개인 주택 및 농장에 대한 가구별 조사로부터 시작한다.

(3) 직결(direct access)의 원칙 : 물자 및 정보의 흐름이 상위중심지와 개인 주택이 직결되기 위해서는(중간단계인 중심마을과 기초 자연부락의 정주계층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교통수단의 접근성과 도로체계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는 공간극복을 위한 교통 및 도로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공동공간에 대한 개인공간의 우선 배치 원칙 : 전통적인 커뮤니티 만들기는 공동공간을 중심에 먼저 조성한 후에 이를 근간으로 개인공간을 배치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이제는 개인 공간(주택, 농장, 기타 개인시설 등)에 대한 터잡기에서부터 마을만들기를 시작해야 한다. “공동성의 추구는 개체의 자립성이 충분히 달성한 이후에 비로소 시작한다.”라는 것이 새로운 커뮤니티설계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5) 주거설계에서 생활기능의 강화 원칙 : 농작업마당, 축사, 농산물 수납창고, 농자재 보관창고, 간이 작업장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공간은 주택 및 마을 주거지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주거계획에서 생산기능을 축소시키고 대신 생활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한다. 생산기능은 주거지에서 격리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중

시하여 주거공간 설계도 이제 생활기능이 강조되는 몸체 중심의 단위주거가 구성되도록 한다. 그리고 신개축되는 주택 규모가 절대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중시, 신축 주택은 매스(mass)를 대폭 늘려야 한다.

(6) 산간지 분산된 주거지와 농장의 근접 배치의 원칙 : 주택들이 높은 표고의 전작지에 산재하고 있는 정주패턴을 중시하여, 개별 전작농가의 영농활동의 편이성, 특히 농장 도달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인근 농장에 근접하여 배치한다. 과거 화전민촌 정리책의 일환으로 高地 농가들을 저지대로 소개했으나, 영농활동의 불편으로 원위치로 재이주한 점을 참고하여 고지 주민을 의도적으로 집단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노동에 의존하는 전작농가의 배치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작업권의 동선체계이고 그 기본원칙은 동선길이의 최소화이다.

(7) 산간지역 소도읍의 생활거점화 원칙 : 지금까지 소규모 취락이 분산된 산간지역에 대한 정주계획은 중심마을을 거점으로 산재한 주택을 집단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심마을의 기능이 상실되고, 오히려 상위 중심지인 면소재지급 소도읍이 생활거점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간지역의 생활거점으로서 소재지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희망하여 고지대 주택이 저지대로 이주할 경우 본동 마을로 옮길게 아니라, 오히려 소재지로 유도하는 것이 생활의 편의와 장래 재편되는 정주체계를 고려한 설계기법이라 하겠다.

면소재지 소도읍에 대한 정주계획은 도시지역내 농가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협동작업이 요망된다. 소도읍에 대한 정주계획은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설계의 고유 과제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는 커뮤니티설계라는 것이 그 성격상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중간영역이면서 상호 협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산촌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설계 개념을 적용했을 때 정주공간을 구성하는 몇가지 설계원칙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조된 것은 커뮤니티

13) 농촌마을에서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정주패턴이 형성되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 주택단위 개인 정주기능을 중심으로 마을공간이 재구조화되는 현상에 대한 개념적 제안은 윤 이(1995:319-354)를 참조 바람.

설계라는 것이 단순히 환경양식이나 물리적인 공간형태의 창출에만 치중하는게 아니라,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민의 사회경제 활동에 주목하여 공간분절단위와 정주활동의 수평 수직적 질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설계구역과 커뮤니티 내부 공간조직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민이 발생시키는 행위와 특정 장소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영농활동과 토지공간의 관계,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커뮤니티 외부 정주지와와의 관계 등을 살펴면서 커뮤니티의 공간단위라는 것이 수평적 범역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수직적 계층체계에 의해서도 구조되는 입체적 질서체계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직 커뮤니티설계가 개념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주로 도시의 건축양식이나 주민참여 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이 나타나는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붕괴 위기에 직면한 조건불리지역 오지로부터 정주공간 구성 원칙을 도출해 봄으로써 커뮤니티 정주질서의 원형질적인 변화를 기저에서 확인하고, 이를 농촌 커뮤니티설계의 출발로 삼고자 했다. 급격한 부침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산촌으로 부터 깊이 누적된 정주질서를 조명함으로써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인간 삶의 공간적 형식을 이해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커뮤니티설계의 시작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농어촌발전위원회(1994),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농어촌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pp.101-107.
2. 류우익 외(1988), 「산촌지역 정주체계의 정비방안 연구」,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3. 박종화 윤대식 이종렬(1995), 「지역개발론」, 박영사, pp.240-242.
4. 서종혁 외(1996),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 연구: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96-12, pp.121-150.
5. 엄기철(1994), 「특정 낙후지역 개발제도 개선방안」, 「농어촌발전위원회 발표자료집」 pp.125-144.
6. 윤원근, 이상문(1995), 「정주계층간 사회경제 및 공간 관계 변화에 대응한 농촌 공간정책의 방향모색」, 「농촌사회」제5집, 한국농촌사회학회지, pp.319-354.
7. 윤원근, 이상문(1996), 「산간촌락에서의 정주공동성의 존재형태」,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1996. 5. 31) 발표논문, pp.1-16.
8. 이상문(1996), 「환경설계의 새지평, 커뮤니티 디자인의 모색」, 「조경세미나」(서울대 환경대학원), pp.1-15.
9. 이상문(1996), 「독일의 생태 문화적 마을재정비(Dorferneuerung)에 관한 고찰」, 「농촌계획」,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2 No.1, pp.57-68.
10. 이정환 외(1991), 「경제사회 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6-17.
11. 伊藤庸一(1995), 「農村集落における空間認知に見られる領域性に関する研究」, 農村計劃學會誌」No. 1 Vol. 4, pp.16-28.
12. 宮澤 鐵藏(1984), 「發生行為量の周邊」, 農村計劃論(青木志郎 編著), 社団法人 農山漁村文化協會, pp.302-329.
13. Greene, Sherwin(1992), Cityshape: Communicating and Evaluating Community Design,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 2:177-189.
14. Lozano, Eduardo E(1990), Community Design and the Culture of C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23.
15. Murphy, Peter E(1988.), Community Driven Tourism Planning, Tourism Management 9, 3:100-109.
16. Poplin, Dennis E.,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지역사회학」(홍동식 박대식 편역, 1985), 경문사, pp.18-41.